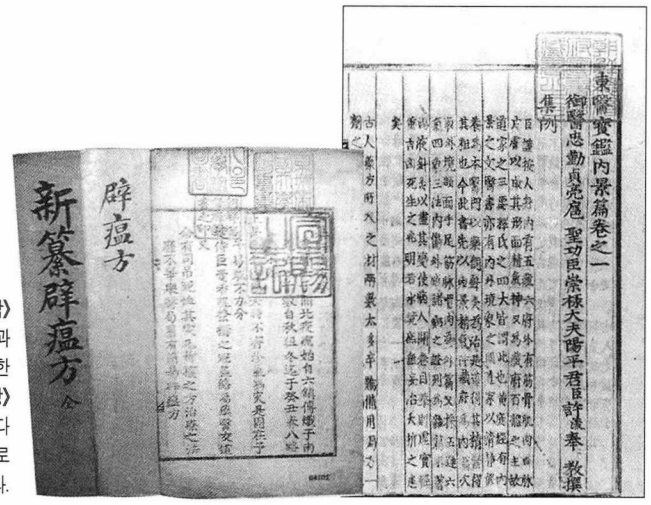
'동의학'에 이정표 세운 '동의보감'

고금의 동양의학 에센스 체계화한 세계적 의학백과전서



허준의 《동의보감》 초간본(보물 제1085호)과 전염병 치료에 관한 의서인 《신찬 벽온방》(보물 제1087호). 둘다 1613년 훈련도감활자로 간행됐다.

허준(許浚)의 《동의보감》 초간본(1613)이 정부에 의해 보물(제1085호)로 지정된 것은 1991년 9월, 공교롭게도 소설 《동의보감》이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로 한창 팔려나가던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은성의 소설이 아니었더라면 《동의보감》은 뒤늦게나마 국가지정 문화재로 각광을 받기 어려웠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고, 또 허준이란 이름도 이은성이란 작가의 지우(知遇)를 얻지 못했더라면 그토록 유명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중국의학이 들어오기는 6세기경의 일이지만, 특히 조선 세종때에 이르러 중국의학을 주체적으로 재정리하려는 경향이 높아져 《향약집성방》·《의방유취(醫方類聚)》 같은 방대한 의서(醫書)가 편찬되면서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걸었으며, 그로부터 약2세기가 지나 허준의 《동의보감》이 완성되면서 비로소 '조선의 의학' 곧 동의학(東醫學)의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약학의 효시를 이룬 책은 1399년(정종 1)에 편찬된 《향약제생집성방》이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중국의학을 떠난 독자적인 국산약 처방을 집대성한 것이 1433년(세종 15) 85권 80책으로 간행된 《향약집성방》이다. 여기서 '향약'이란 중국산 약에 대한 대칭으로 우리나라의 약재를 의미한다.

《향약집성방》에 뒤이어 1445년(세종 27) 당나라에서 명나라 초기에 이르는 의학서들을 집대성한 것이 《의방유취》(전266권 264책)인데, 이는 당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학백과전서였다. 이 책은 워낙 규모가 방대하여 출판되지 못하다가 1477년(성종 8년) '을해자'로 30질을 찍어냈다. 그러나 이 초간본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모두 없어졌고, 왜장 가등청정이 약탈해간 1질만이 현재 일본 궁내성도서실에 있다.

이같은 일련의 선행 업적들을 바탕으로 선조때 왕실 주치의이던 허준(?~1615)이 중국 금·원시대의 의학을 깊이 연구한 끝에 완성해낸 것이 《동의보감》으로, 그야말로 고금의 동양의학의 에센스를 체계화한 의학백과사전이다. 전25권 25책으로 이루어진 《동의보감》은 1613년(광해군 5) 이른바 '훈련도감자'로 출판되었다. 훈련도감이란 임진왜란 중에 설치된 사병훈련기관인데, 전란으로 교서관의 인쇄사업이 어렵게 되자 훈련도감에서 여러 활자본들의 글자꼴을 모형삼아 목활자를 만들어 일종의 후생사업으로 인쇄사업을 벌였다. 이때 만든 목활자가 곧 '훈련도감자'인데, 이 목활자는 효종 초까지 약 반세기에 걸쳐 사용되었으므로 그 인본이 비교적 많이 전하고 있다.

허준의 《동의보감》이 한번 세상에 나오자 그밖의 의서들은 모조리 쓸모없이 되다시피했다는데, 이 책은 일본과 중국에도 전해져 각각 1724년과 1763년에 양국에서 재간행되었다.

허준은 《동의보감》 외에도 여러 종류의 의서를 저술 또는 국역했는데, 그중 《벽역신방》·《신찬 벽온방》과 《언해 태산집요(胎産集要)》 등 세가지가 《동의보감》과 한 날짜에 보물로 지정되었다. 《벽역신방》(1086호)과 《신찬 벽온방》(1087호)은 전염병의 원인·증세와 치료법을 설명한 책으로 둘다 서울대 규장각에 있고, 《언해 태산집요》(1088호)는 임신·출산에 관한 산부인과책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간직돼 있다. (W)

출판저널

통권 제218호 /1997년 7월 20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박남정 마정미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댁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좋은 느낌
빈/칸/만/들/기
일러스트레이션
만화기획
캐릭터 개발
출판사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66-56 대동빌딩 302호
전화 838-4350 팩스 838-4350
핸드폰 011-769-4350

책의 모든것 !!
통신판매
책의 친구들
도서 문의 및 주문하실곳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20-42(2층)
전 화 :(02)388-8401~3
(야간)389-2284
팩 스 :(02)388-0093

독서계의 흐름과 출판계의 이모저모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합철본을 제작, 한층 자료가치가
높아진 합본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출판저널 합본호 판매안내

· 합본1호 (낱권1~10호) 5,000원(판매) · 합본6호 (낱권51~60호) 9,000원 (판매)
· 합본2호 (낱권11~20호) 5,000원(판매) · 합본7호 (낱권61~70호) 10,000원(판매)
· 합본3호 (낱권21~30호) 5,000원(판매) · 합본8호 (낱권71~80호) 10,000원(판매)
· 합본4호 (낱권31~40호) 5,000원(·) · 합본9호 (낱권81~90호) 10,000원(판매)
· 합본5호 (낱권41~50호) 5,000원(판매) · 합본10호(낱권91~100호) 10,000원(판매)

* 구독에 불편하거나·개선할 점이 있으면 전화·서신 등을 통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합본호 구입시 우송료는 수취인 부담이므로 본사를 직접 방문, 구입하시면 유리합니다.

출판저널